

2012. 3. 19. Vol. 12

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주요 농정 이슈

2012년 1~2월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
술 품질인증제, 발효주에서 증류주까지 확대

거시경제 동향

2012년 2월 고용동향
2012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

기획 정보

도·농간 가구 수지 비교 및 농가교역조건 동향

농정 여론 동향

현장의 소리(농업경영컨설팅, 농촌의료서비스 등)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연구 지원 정보

제8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동향분석실

주요 농정 이슈_1

2012년 1~2월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

※ 본 자료는 3월 9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「2012년 1~2월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부류별 수출 실적

- '12년 2월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.8% 증가한 11.3억 달러를 기록
 - 이는 신선농산물(34.0%), 수산물(18.0%) 등의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 증가율(6.8%)을 훨씬 상회하는 성과
- 신선식품은 김치(29.4% 증가), 파프리카(110.1%), 딸기(166.1%), 단감(677.8%) 등 대부분 품목이 고르게 증가
 - 김치는 일본, 미국, 대만 등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, 파프리카도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증가세
 - ※ 김치(19.3백만 달러) 국가별 수출증감율: 일본(22.9%증가), 미국(50.1%), 대만(28.6%)
 - 과일·채소류 중 딸기·단감은 지난 해 작기 조정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이 저조하였으나 올해 동남아 수출을 회복하며 큰 폭으로 증가
 - ※ 딸기: 對싱가포르(3.2백만 달러, 495% 증가) / 단감: 對말련(0.2, 333)
- '11년 큰 증가세를 보였던 인삼은 '11년 말 중화권 수출물량의 재고소진 문제로 수출이 13.1% 감소
 - ※ 인삼(26.7백만 달러) 중화권 수출: 중국(△44.1%), 대만(△65.0%), 홍콩(△5.1%)
- 가공식품도 대부분의 수출품목이 고른 수출 증가세를 보여 전체 수출은 3% 증가한 639백만 달러를 기록
 - 대형 수출품목인 껌과 설탕의 수출실적은 감소

<부류별 농림수산물 수출실적(2월 잠정치)>

단위: 천 톤, 백만 달러, %

구 분	'11년	'11.1~2월		'12.1~2월		증감률	
		물 량	금 액	물 량	금 액	물 량	금 액
전 체	7,691.3	475.0	1,017.8	484.7	1,127.4	2.1	10.8
농식품	5,383.5	381.9	740.4	385.1	799.9	0.8	8.0
신선	1,015.3	36.4	120.3	51.5	161.1	41.3	34.0
가공	4,368.2	345.5	620.1	333.6	638.8	△3.4	3.0
수산물	2,307.8	93.1	277.4	99.6	327.5	7.0	18.0

□ 국가별 수출 실적

- 국가별로는 미국·일본·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, 태국·대만으로는 수출이 감소
 - 특히 미국에서는 꾸준한 홍보 마케팅의 성과로 김을 찾는 현지 소비자가 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이 외에도 음료, 오징어, 굴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
 - ※ 김(7.4백만 달러/33.3%증가), 음료(6.4/57.6%증가), 오징어(5.9/480.5% 증가), 굴(2.2/105.5%증가)
 - 태국과 대만은 주요 품목인 참치와 인삼의 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

<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출실적(2월 잠정치)>

단위: 천 톤, 백만 달러, %

구 분	'11년	'11.1~2월		'12.1~2월		증감률		비 중
		물 량	금 액	물 량	금 액	물 량	금 액	
전 체	7,691.3	475.0	1,017.8	484.7	1,127.4	2.1	10.8	100.0
일본	2,374.2	125.5	289.2	130.1	354.2	3.6	22.5	31.4
중국	1,380.0	81.3	159.3	96.1	184.0	18.2	15.6	16.3
미국	599.8	27.4	75.8	33.1	101.1	20.8	33.5	9.0
러시아	242.7	17.2	40.8	15.9	30.9	△7.5	△24.1	2.7
홍콩	305.5	30.5	40.9	29.2	41.5	△4.3	1.5	3.7
대만	261.0	18.4	45.9	12.4	28.2	△32.8	△38.7	2.5
A S E A N	1,031.9	89.1	144.0	80.8	155.2	△9.3	7.8	13.8
E U	362.9	28.7	61.8	24.4	73.7	△15.2	19.4	6.5
기타	1,133.3	56.9	160.1	62.7	158.6	10.6	△1.1	14.1

주요 농정 이슈_2

술 품질인증제, 발효주에서 증류주까지 확대

※ 본 자료는 3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술 품질인증제, 발효주에서 증류주까지 확대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실시배경

- '10. 2. 4.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공포되고,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'10. 8. 5. 자로 시행
 - 위 법률 제22~31조에서 술 품질인증제 규정
- '11년 도입한 발효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금년부터 증류주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우리농산물로 만든 우리술 소비촉진을 통해 술 산업 활성화 필요

□ 주요내용

- 2012년부터 증류식소주·일반증류주·리큐르(liqueur: 알코올음료) 등 3개 주종(약 3백억 원)에 대해 품질인증을 추가
 - 막걸리·약주·청주·과실주 등 발효주 4개 주종(시장규모 약 80백억 원)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를 2011년도에 우선 시행
 - ※ 술 품질인증 현황: 업체수 31개, 공장수 32개, 인증건수 55건

<술 품질인증 현황('12. 2월)>

구분	계	탁주(막걸리)	약주	청주	과실주
업 체 수	31	28	1	-	4
공 장 수	32	29	1	-	4
인증건수	55	50	1	-	4

○ 술 품질인증 표지(마크)는 “가”형과 “나”형으로 구분

- 녹색 바탕의 “가”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
- 황금색 바탕의 “나”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**주원료와 국(麴: 누룩)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% 국내산인** 경우에 사용
- ※ 2012년 2월 현재까지 55개 제품이 술 품질인증을 받았으며, 43개 제품이 황금색 인증마크를 사용(78.2%)하고 있어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<술 품질인증 마크>

(“가” 형, 녹색)



(“나” 형, 황금색)



○ 술 품질인증기준

- 제조방법 기준: 2~6개 항목으로 모두 적합해야함.
 - ※ 예) “제조과정에 조미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
- 제조장 기준: 16~19개 항목으로 필수기준은 모두, 권장기준은 약 60% 적합
 - ※ 예) (필수) “제품과 원료·자재 등은 명확하게 구분 관리하고 유독성 물질,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 등은 별도의 장소에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.”
 - (권장) “병입·포장실은 다른 작업장과 구분하여야 한다.”
- 제품품질 기준: 이화학적 품질기준(5~8개)은 모두 적합, 관능평가기준(6~9개)은 항목별로 5점 중 평가자평균 3점 이상
 - ※ 예) “삭카린나트륨 불검출”, “메탄올(mg/mL) 0.30이하”

거시경제 동향_1

2012년 2월 고용동향

※ 본 자료는 3월 1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2년 2월 고용동향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○ 2012년 2월 고용률은 57.5%로 전년 동월대비 0.4%p 상승

※ 15~64세(OECD비교기준) 고용률: 63.0%(전년 동월대비 0.6%p 상승)

- 취업자는 2,378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4만 7천 명 증가

·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건설업, 운수업,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

·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.2% 감소(3만 7천 명 감소)한 110만 9천 명으로 집계

<2012년 2월 취업자 및 고용률>

구분	'11. 2월	11월	12월	'12. 1월	2월
취업자(전년 동월증감, 만 명)	46.9	47.9	44.1	53.6	44.7
비농림어업	(52.0)	(49.1)	(46.6)	(50.0)	(48.3)
공공행정 이외	(45.0)	(52.8)	(43.8)	(49.5)	(40.0)
고용률(%)	57.1	59.7	58.5	57.4	57.5
청년층(15~29세)	(40.1)	(40.2)	(40.1)	(40.8)	(40.5)
(25~29세)	(68.5)	(70.3)	(69.6)	(69.1)	(69.5)

○ 실업률은 4.2%로 전년 동월대비 0.3%p 하락

- 실업자는 10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만 2천 명 감소

※ 주요 국가의 실업률(%): 미국 8.7, 호주 5.9, 일본 4.5, 독일 6.4, 프랑스 10.5, 스페인 23.8

<2012년 2월 실업자 및 실업률>

구분	'11. 2월	11월	12월	'12. 1월	2월
실업자(만 명)	109.5	73.0	75.4	85.3	104.2
전년 동월증감(만 명)	-7.4	-0.8	-9.9	-6.5	-5.2
실업률(%)	4.5	2.9	3.0	3.5	4.2
청년층(15~29세)	8.5	6.8	7.7	8.0	8.3
(25~29세)	(7.0)	(5.8)	(6.3)	(6.5)	(7.2)

○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만 8천 명, 건설업 7만 7천 명, 운수업 7만 2천 명, 도매 및 소매업 7만 1천 명,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만 6천 명 증가

○ 취업구조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 동월대비 41만 7천 명 증가함.

- 일용직 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4만 3천 명 감소,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 3천 명 증가

<종사상 지위별 취업자>

구분	'11. 2월	11월	12월	'12. 1월	2월
취업자 전체(전년 동월증감, 만명)	46.9	47.9	44.1	53.6	44.7
비임금근로자	-10.5	13.0	9.8	18.3	7.7
자영업자	-13.0	13.5	13.3	19.0	13.3
무급가족종사자	2.5	-0.5	-3.5	-0.7	-5.6
임금근로자	57.4	34.9	34.3	35.3	36.9
상용	60.4	50.5	47.7	46.5	41.7
일시	-5.7	-2.2	-1.3	2.1	9.5
일용	2.7	-13.3	-12.2	-13.3	-14.3

<주요 용어>

○ 경제활동인구

-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.

○ 경제활동참가율(%) = (경제활동인구 ÷ 15세이상인구) × 100

○ 고용률(%) = (취업자 ÷ 15세이상인구) × 100

○ 실업률(%) = (실업자 ÷ 경제활동인구) × 100

거시경제 동향_2

2012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

※ 본 자료는 3월 1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2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수출물가지수

○ 2012년 2월 전월대비 수출물가는 0.6% 하락(전년 동월대비 2.1% 상승)

- 농림수산물: 전월대비 2.7% 하락

※ 전월대비 등락률(%): 오징어 -3.7, 조개 -3.4, 참치 -3.0, 배 -2.0, 김 0.3

※ 전년 동월대비 등락률(%): 조개 9.1, 김 2.0, 참치 16.7, 배 23.3, 오징어 -2.7

- 공산품: 유가상승을 반영하여 석유화학·고무제품이 올랐으나 통신장비제품, 자동차 등 운송장비제품의 가격이 내려 전월대비 0.6% 하락

<수출물가지수 등락률>

단위: %

구분	가중치	전월대비				전년 동월대비			
		11월	12월	'12.1월	2월	11월	12월	'12.1월	2월
		11월	12월	'12.1월	2월	11월	12월	'12.1월	2월
총 지 수	1000.0	-2.3	0.3	1.1	-0.6	5.4	2.5	4.6	2.1
		<-0.3>	<-0.8>	<1.3>	<-1.3>	<4.7>	<2.3>	<2.3>	<-1.6>
농림수산물	5.1	-4.1	0.2	-0.4	-2.7	22.9	20.3	18.3	12.3
공 산 품	994.9	-2.3	0.3	1.1	-0.6	5.3	2.4	4.5	2.0
석유화학·고무제품	193.1	-2.9	-0.1	4.0	1.3	13.3	7.5	10.1	6.3
1차금속제품	72.8	-3.2	-1.5	0.4	-0.8	3.9	-1.6	-0.8	-2.7
일반기계·장비제품	66.6	-1.9	1.2	0.4	-1.6	3.5	2.5	4.7	2.8
전기장비제품	53.8	-1.7	1.4	0.3	-1.1	2.9	0.7	1.3	-0.6
컴퓨터·영상음향·통신 장비제품	361.5	-1.4	0.8	0.0	-1.8	-4.0	-4.6	-0.3	-2.2
운송장비제품	144.4	-2.1	0.7	-1.6	-1.3	2.3	1.8	2.4	0.9

주: < >내는 계약통화기준임.

□ 수입물가지수

○ 2012년 2월 수입물가는 원유, 비철금속 등 수입원자재를 중심으로 각각 전월대비 0.5% 상승(전년 동월대비 5.2% 상승)

※ 원/달러 평균환율: 2012.1월 1,145.85 → 2012.2월 1,123.35 (전월대비 2.0% 절상)

※ 두바이유(가/월평균, 달러/bbl): 2012.1월 109.5 → 2012.2월 116.2 (전월대비 6.1% 상승)

- 원자재: 원면, 냉동어류 등 농림수산물은 하락, 원유, 동광석, 우라늄 등 광산품이 올라 전월대비 1.8% 상승

- 중간재: 석유제품, 1차비철금속제품이 올랐으나 컴퓨터·영상음향·통신 장비, 1차철강제품 및 비금속광물제품 등은 내려 전월대비 0.3% 하락

- 자본재 및 소비재: 자본재는 1.9% 하락, 소비재는 보합

<수입물가지수 등락률>

단위: %

구분	가중치	전월대비				전년 동월대비			
		11월	12월	'12.1월	2월	11월	12월	'12.1월	2월
		11월	12월	'12.1월	2월	11월	12월	'12.1월	2월
총 지 수	1000.0	-1.6	0.2	0.8	0.5	11.8	7.1	7.9	5.2
		<0.6>	<-1.0>	<1.0>	<2.6>	<11.1>	<6.7>	<5.3>	<4.6>
원 자 재	278.2	0.4	-0.5	0.8	1.8	26.9	18.3	16.8	12.5
농림수산물	30.2	-5.4	-3.8	1.7	-0.6	3.8	-7.0	-8.0	-11.9
광 산 품	248.0	1.0	-0.2	0.7	2.0	29.8	21.4	20.0	15.5
중 간 재	556.7	-3.1	0.7	1.1	-0.3	3.4	0.3	2.4	0.3
석유제품	34.8	-2.7	3.8	6.6	6.2	11.2	4.5	14.0	18.2
화학제품	87.4	-4.3	-1.3	1.2	-0.1	9.6	3.8	6.2	3.0
비금속광물제품	14.0	-5.0	0.7	-3.2	-1.6	-4.3	-4.1	-4.0	-6.1
1차철강제품	59.4	-3.9	0.9	-0.2	-1.7	0.7	-1.3	-0.8	-4.8
1차비철금속제품	39.3	-2.4	-0.6	3.8	2.0	-4.4	-9.8	-7.6	-9.2
컴퓨터·영상음향·통신 장비제품	154.6	-1.9	1.1	-0.4	-2.5	0.2	-0.4	2.6	0.1
자 본 재	98.6	-2.4	0.7	-0.7	-1.9	2.2	1.9	3.0	1.1
소 비 재	66.5	-1.7	0.6	0.5	0.0	3.0	0.4	3.1	3.2

주: < >내는 계약통화기준임.

기획 정보

도·농간 가구수지 비교 및 농가교역조건 동향

※ 본 자료는 2월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1년 4/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」의 주요 내용과 동향분석실의 농가교역조건 수지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임.

□ 도·농간 가구수지 비교

○ (2011년 연간 가구소득)은 월평균 424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.8% 증가

- 2011년 연간 가계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1.2% 증가에 그친 이후, 증가폭이 확대된 2010년과 동일한 증가세 유지

○ (2011년 연간 가구지출)은 월평균 33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4.6% 증가

- ※ 연간 소비지출 전년대비 증감률: ('09년) 1.7% → ('10년) 6.4% → ('11년) 4.6%
- 소득증가, 고용확대 등에 따른 조세, 연금 및 사회보험 등 증가에 기인

<도시근로자 가구의 흑자율 추이>

단위: 만 원, %, %p

구 분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
소 득 (A)	2,930	3,113	3,252	3,444	3,656	3,901	3,853	4,008	4,249
가구지출 (B)	2,302	2,447	2,561	2,682	2,827	3,026	3,037	3,209	3,364
도시근로자 가구 흑자율지수 (A/B)	127.3	127.2	127.0	128.4	129.3	128.9	126.9	124.9	126.3

주: 도시근로자 가구 흑자율: (소득/가계지출)×100 :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과 가구지출액의 상승폭을 비교하여 도시가구의 재산성을 따지기 위한 지표 - 100이상(이하) : 소득 >(<)가구지출액 ⇒ 흑자율 (적자율)

○ (2010년 연간 농가소득)은 월평균 32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4.5% 증가

- 농외소득(겸업소득+사업외소득)과 이전소득 증가에 기인

○ (2010년 연간 농가지출)은 월평균 276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4.1% 증가

- ※ 연간 소비지출 전년대비 증감률: ('08년) -3.4% → ('09년) -1.9% → ('10년) 4.1%

- 임금과 중간재비 등의 경영비 상승이 증가에 기인

<농가 흑자율 추이>

단위: 만 원, %, %p

구 분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
소 득 (A)	2,688	2,900	3,050	3,230	3,197	3,052	3,081	3,221
가구지출 (B)	2,406	2,469	2,665	2,846	2,805	2,710	2,657	2,767
농가 흑자율지수(A/B)	111.7	117.5	114.5	113.5	114.0	112.6	116.0	116.4

주: 농가 흑자율: (소득/가계지출)×100 : 농가소득과 가구지출액의 상승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재산성을 따지기 위한 지표 - 100이상(이하) : 소득 >(<)가구지출액 ⇒ 흑자율 (적자율)

□ 농가 교역조건 동향

○ (농가구입·판매가격지수) 2003년 이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국제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정체내지 하락

- 농가교역조건지수는 '00년 111.7에서 '09년에는 83.9로 하락하였으나 '11년의 경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대비 11.2% 상승, 농가구입가격지수는 4.2% 상승에 그쳐 농가교역조건은 6.5% 개선

<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(2005=100)>

구 분	2000	2005	2007	2009	2010	2011	변화율(%)		
							'11/'00	'11/'05	'11/'10
농가교역조건지수 (A/B)	111.7	100	96.6	83.9	88.5	94.3	-15.6%	-5.7%	6.5%
농가판매가격지수 (A)	89.5	100	101.2	101	108.1	120.2	34.3%	20.2%	11.2%
농가구입가격지수 (B)	80.1	100	104.8	120.4	122.2	127.4	59.1%	27.4%	4.2%

○ (국제유가 상승 영향)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가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가가 배럴당 119~150

달러 수준으로 오를 경우 교역조건은 하락할 것으로 추계됨.

- 교역조건은 전년대비 -2.6%에서 -7.5% 수준까지 하락

<시나리오별 농가교역조건 변화율>

구 분	2010	2011	2012			전년대비 증감률(%)		
			시나 리오1 (\$119)	시나 리오2 (\$136)	시나 리오3 (\$151)	시나 리오1 (\$119)	시나 리오2 (\$136)	시나 리오3 (\$151)
농가교역조건 지수 (A/B)	88.5	94.3	91.9	89.3	87.4	-2.6	-5.4	-7.5
농가판매가격지수 (A)	108.1	120.2	124.4	129.3	133.3	3.4	7.5	10.8
농가구입가격지수 (B)	122.2	127.4	135.3	144.8	152.6	6.2	13.6	19.8

주: 고유가 시나리오 배럴당 \$119(시나리오1), \$136(시나리오2), \$151(시나리오3) 가정2. 2011년 기준 평균인 \$106 대비임.

자료: 2012년 2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「국제유가 동향과 전망」의 고유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동향분석실 유가반응모형의 추정결과임.

농정 여론 동향_1

농촌 현장 여론(KRB 리포터 현장의 소리)

□ 농업경영컨설팅, 컨설팅업체 전문성과 사후관리가 관건

- 3년 전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유통 관련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 받아 친환경 인증도 받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면서 전량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성과가 있었음. 하지만 3년이 경과된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음. **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재교육 등 사후관리시스템이 요망됨.**<김용덕, 경기 남양주>
- 농업경영인 대부분이 노령화되어 있는 현재의 농촌구조를 감안하면 경영컨설팅이생소할 뿐만 아니라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됨. **고령농업인 특성에 맞춘 경영기법과 마인드 함양이 필요함.**<김병철, 경남 김해>
- 가공분야 농업경영컨설팅을 2년에 걸쳐 받은 적이 있으나 생각과는 달리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였다고 들었음. 컨설팅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사후관리 부실이 원인임. 농식품부에서 **컨설팅업체를 해마다 재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며** 컨설팅업체가 농가 방문시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도 함께 동행해 관리감독해야 함.<방호정, 경남 하동>
- 지역 또는 광역단위로 선도농가를 컨설팅 지도자로 양성하여 농가지도 를 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음. 또한, **인근 대학에서 경영, 마케팅, 기술 지도를 받고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경영지도사, 마케팅 지도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함.**<정은실, 제주 제주>
- 농업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은 현실성이 없고 실패의 확률이 높음.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소득원 개발과 주민위주의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독특한 환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. **객관적인 업체 선정과 배정, 그리고 철저한 단계별 평가가 요망됨.**<임충빈, 경기 안성>

□ 농촌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확충 절실

- 농촌노인들 대부분이 강도 높은 노동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예방적 차원에서 **마을회관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설치**해 농촌주민 건강증진에 힘써주기 바람.<주양호, 전남 장흥>
- **농촌주민 건강관리는 의료 사각지대인 읍면에서 거리가 먼 곳부터** 시범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음.<김용덕, 경기 남양주>
-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치료가 쉽지않아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. **농업 종사에 따른 직업병 성격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이 필요함.**<송인숙, 강원 강릉>
- 국가에서 **농촌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을 추가 배정**하여 농업인들이 빈부에 관계없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도록 힘써주기 바람.<김병철, 경남 김해>
- 보건소에서 매달 형식적인 맛보기용 건강교육이 전부이고 정신건강도 중요한데 치료 프로그램이 부족함. **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기** 바람.<김갑순, 경북 영양>
- 전남 화순은 산골마을이 많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음. **산골 마을의 보건의료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.**<나종주, 전남 화순>

□ 안중 FTA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우선 고려해야

- 우리나라 축사 구조상 70% 이상은 무허가 축사에 가까워 FTA개방으로 인한 피해 대책에서도 소외될 수 밖에 없음. **축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협상과 피해 대책이 요구됨.**<남도성, 충남 당진>
- 한·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국민들은 **먹거리까지 수입산에 의존하게 될 것임.** 우리나라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다해도 국민들의 식량안보까지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임.<김용덕, 경기 남양주>
- 한·중 FTA 체결로 공산품을 많이 팔아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을 지라도 손해 볼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들일 것임. 지금도 값싼 중국산 농산

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 **공식적으로 FTA까지 체결된다면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이 우려됨.**<이현순, 경남 통영>

- 한·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3.15일부터 발효되면 농축산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됨. **자동차 등 혜택받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업투자자에 적극 지원해야 함.**<김병철, 경남 김해>

□ 기타

○ 마을회관 난방비 절감위해 화목보일러 설치 필요

- 전국 어디를 가나 마을회관은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 난방비가 가장 큰 문제임. 우리 지역에서는 기름보일러를 철거하고 **화목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에 필요한 폐목은 지방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활용하고 있음.** 경비가 크게 절감되어 난방 걱정을 덜었음.<최영호, 충남 부여>

○ 소하천 바닥 콘크리트 철거해 자연 정화기능 살려야

- 농촌지역 조그만 하천 바닥까지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. 유량이 많지 않고 경사가 완만한 곳은 **바닥만이라도 흙이 있게 하는 등 최대한 환경을 살려 자연 정화기능을 갖게해야 함.**<남도성, 충남 당진>

○ 가축분뇨 야적으로 인한 개천 수질오염 예방대책 필요

- 축사주변 가축분뇨 야적으로 인해 여름철 우천시 가축분뇨가 유실되어 개천바닥에 침전되고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음. **우천시에 가축 분뇨가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개천 수질이 개선되도록 해 주길** 바람.<김장희, 충남 청양>

○ 농지구입 후 자경실태 관리감독 필요

- 농지 구입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철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가 없어 불법 매매가 많음. **농지구입 300평 이상은 자경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, 300평 이상의 농지 소유주가 자경을 못하는 경우 강제매매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함.**<김장희, 충남 청양>

※본 자료는 3월 12일~16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·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농수축산물 가격 상·하한선 관리제 추진

- 농수축산물 품목별 가격 상·하한선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 추진. 농산물의 경우 가격 민감도에 따라 쌀 10%, 축산물 20%, 채소류 30% 등으로 상·하한선 구분 검토. 상·하한선 10%로 제한되는 초민감 품목은 가격이 10%만 올라도 정부 구매, 수입 확대, 생산지 폐지 등 조치. 소, 돼지, 닭 등 축산물도 초민감 품목에 포함하는 것 검토 중. 채소류 중 배추와 마늘, 양념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은 상·하한선을 30%보다 낮추는 것도 논의. 농식품부,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와 추가 논의를 거쳐 품목별 상·하한선 확정할 예정

자료: 해럴드 경제, 연합뉴스, 서울경제, KBS, YTN, 한국정책방송 등(2012.3.15).

□ 봄배추 계약재배 확대

- 농식품부, 4월까지 배추값 평년보다 다소 높은 값 전망. 계약재배 확대 계획. 또한 겨울배추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시장에 출하 예정.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평년 1만361ha보다 12%, 전년 1만2122ha보다 25% 감소한 9.76ha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어 봄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봄배추 계약재배 상황실 운영, 계약재배 목표 8만 톤 설정, 단기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및 농협 비축물량 4만5000톤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하며 대응

자료: 한국농어민신문(2012.3.15).

□ 양파값 내리막 심상찮다

- 다음달 조생종 출하 시작인데 수급대책 마련 못하면 올해도 양파값 파동 우려.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양파 kg당 3월 상품 평균가격은 약 570원으로 평년의 평균가격 1,048원의 절반수준으로 하락. 이는 재배면적 늘면서 저장물량 급증한데 기인. 저장양파 재

고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조생양파의 출하를 지연시킬 경우 그 특성상 구 비대가 꾸준히 이뤄져 생산량이 20~30% 이상 증가, 이 또한 가격 하락의 원인

자료: 한국농어민신문(2012.3.15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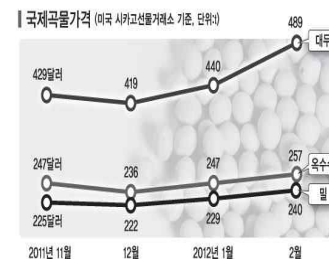
□ 치솟는 국제유가...농자재업체 '울상'

-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해 농자재업체 생산비 올라 채산성 악화·자금난 우려.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5.51달러, 올해 109.52달러(1월)→116.25달러(2월 셋째주)→123.67달러(3.12 현재)로 가파른 상승세. 농경연에서 발표한 농업부문의 영향을 살펴보면, 국제유가가 10% 상승 시 농자재(농업용품) 가격은 4.2% 가격 상승 추정. 전반적인 농업생산 활동 위축 예상

자료: 농민신문(2012.3.16).

□ 국제곡물 수급 불안...값 줄렁

- 지난해 10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곡물시장이 최근 들어 수급불안. 특히 옥수수과 대두 2011-2012년 기말재고율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. 국내외 곡물 수급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비 필요.



농식품부, 곡물가격지수의 상승이 불안정한 공급량과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(CIS)에서의 추운 날씨로 인한 밀 가격 대폭 상승, 아시아의 수요 증가, 미국 달러화 약세 등에 의한 옥수수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.

자료: 농민신문(2012.3.16).

□ 인삼산업에 6년간 1조 투자

- 농식품부, 3.8일 2017년까지 인삼산업 1조원 투자해 인삼 생산액을 현재보다 두 배 많은 2조원 생산·6억 달러 수출로 확대한다는 '인

자료: 농민신문(2012.3.12).

○ **지주회사는 수익창출이 최우선…금융조직만 팽창.** 경제부문 지역조직 정원 개편 전보다 236명 축소, 은행 영업본부 등 신설, 금융 관련 직원 수백 명 늘리고, 중앙회 중심 경제사업 나서…일선조합과 충돌 우려

The organizational chart is structured as follows:

- 회장 (President)**
 - 전무이사 (Executive Director)
 - 농업경제대표이사 (Agricultural Economy Representative Director)
 - 축산경제대표이사 (Livestock Economy Representative Director)
 - 상호금융대표이사 (Mutual Finance Representative Director)
- 지역본부 (Regional Headquarters)**
 - 농협경제지주 (Nonghyup Economy Holding Company)
 - 기타지회사 (Other Regional Companies)
 - 농협먹우촌 (Nonghyup Meokwocun)
 - 농협사료 (Nonghyup Feed)
 - 남해화학 (Namhae Chemical)
 - 농협유통 (Nonghyup Distribution)
 - 농협금융지주 (Nonghyup Finance Holding Company)
 - 농협은행 (Nonghyup Bank)
 - 농협생명 (Nonghyup Life Insurance)
 - 농협손해 (Nonghyup Reinsurance)
 - NA농협증권 (NA Nonghyup Securities)
 - 기타지회사 (Other Regional Companies)

지역본부 (Regional Headquarters) Branches:

- 충전 (Chungcheong)
 - 도지역본부 (Do Regional Headquarters)
 - 경영지원부 (Management Support Department)
 - 경제사업부 (Economic Business Department)
 - 조합경영검사팀 (Cooperative Management Inspection Team)
 - 금융사업부 (Financial Business Department)
- 개편 (Reorganization)
 - 도지역본부 (Do Regional Headquarters)
 - 경영지원부 (Management Support Department)
 - 경제사업부 (Economic Business Department)
 - 지역검사국 (Regional Inspection Agency) (Formerly Nonghyup Regional Finance Supervisory Office)
 - 금융사업부 (Financial Business Department)

시군지부 (City/County Branches):

- 충전 (Chungcheong)
 - 시군지부 (City/County Branches)
 - 농정지원단 (Agricultural Policy Support Team) (Formerly Regional Branch Office)
 - 연합사업단 (United Business Team) (Formerly Regional Branch Office)
 - 농협은행 시군지부 (Nonghyup Bank City/County Branches)
- 중앙회 시군지부 (Central Federation City/County Branches)

중요회 (Important Meetings): 중앙회 → 농정지원단, 농협은행 → 시군지부

○ **농진청, 3.12일 통합 '귀농귀촌종합센터' 개소식 갖고 업무 시작.**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농업정책 전문기술 등 종합상담.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농진청, 농어촌공사, 농협 등에서 수행하던 귀농귀촌 지원업무를 **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**하여 원-스톱 서비스 제공. 1:1 상담 및 현장실습교육 등 안내, 귀농귀촌종합센터 통합 홈페이지 (www.returnfarm.com) 구축, 또한 귀농귀촌하는 신규 유입 인력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분담해 추진할 계획

○ 정부와 농협중앙회, 봄동상해 상품에 대한 인정 피해율을 현행 70%에서 20% 삭감한 50%로 낮추면서 농작물 재배보험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. 농협측, “수익성 악화”로 지급을 축소. 농가측 “납입한 돈 찾는 수준”이라며 반발. 자기피해부담률 20%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보상받는 비율은 30%에 불과. 정부와 농협중앙회, 약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농가들의 반발 예상.

○ **농협중앙회**, 3.9일 농식품부에서 **‘비료담합관련 종합대책’** 발표. 자유경쟁체제 도입. 최근 불거진 입찰담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**300억 원 수준의 재원 마련해 농가들의 비료값 부담 완화**, 입찰관행 방지 위해 **담합방지교육 정례화**, **신고포상금제도 도입**, 입찰 후 담합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금액의 10% 배상하는 **손해배상예정제 도입**, 담합업체는 다음해부터 2년간 입찰참여 제한, 비료공급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농업인, 학계, 일선농협, 업계,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비료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

- 18 -

연구 지원 정보

제8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

※ 본 자료는 2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제8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-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**경제환경 변화**를 반영하고 **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선행력 향상**을 위해 통계개편을 실시하였음.
- 개편결과 **경기종합지수의 시차 안정성이 개선**되고 **선행시차가 확보**되어 **경기예측력이 제고**될 것으로 기대됨.

□ 개편의 주요특징

- 선행지수의 선행시차를 충분히 확보하고 **최근의 경기변동을 잘 반영하는 지표**를 우선 선정
 - 해외 경기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**대외부문 지표**를 확대
 - 경기 예측력 강화를 위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작성 등 **선진 작성기법 검토**
- **선행지수 보조지표**를 현행 전년 동월비에서 **순환변동치**로 변경
 - **기저효과 문제가 있는 전년 동월비**를 동행지수 보조지표와 직접비교가 가능하도록 **순환변동치**로 대체

□ 경기종합지수 개편 내용

- (**선행종합지수 (10개 → 9개)**) 선행성이 우수하고 시의성이 있는 자료를 구성 지표로 선정함.
 - 해외 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**국제원자재 가격지수**를 추가
 - 현행 구성지표인 **순상품교역조건(단가기준)**을 **선행성이 보다 우수한 물가 기준**으로 교체

<선행종합지수 변경 내용>

현 행 (10개)	개 편 후 (9개)	변 경 사 유
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	좌 등	
기계수주액	기계류내수출하지수 (선박제외)	· 설비투자부문 중 선행성이 좋은 지표로 대체
자본재수입액	-	· 선행성 약화로 제외
	국제원자재가격지수 (역계열)	· 해외부문을 반영하면서 선행성이 좋은 지표를 추가
순상품교역조건(단가)	수출입물가비율	· 단가지수로 작성한 순상품교역조건보다 선행성이 우수하여 대체
종합주가지수	코스피지수	· 명칭 변경
장단기금리차	좌 등	
금융기관유동성(말잔)	-	· 자료의 시의성이 떨어져 제외

- (**동행종합지수 (8개 → 7개)**) 경기선행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부문과 고용 부문 지표를 대체하고 생산부문 지표 비중은 축소

<동행종합지수 변경 내용>

현 행 (8개)	개 편 후 (7개)	변 경 사 유
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(도소매업제외)	좌 등	
제조업가동률지수	-	· 동행지수에서 차지하는 생산부문 비중이 높아 제외
도소매판매액지수	소매판매액지수	· 소비동향 주지표로 활용되고 경기선행력이 좋은 지표로 대체
내수출하지수 건설기성액 수입액	좌 등	
비농가취업자수	비농림어업취업자수	· 경기선행력이 좋은 지표로 대체

- (**후행종합지수 (5개 → 5개)**) 시차 안정성을 개선시키고 최근의 경기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함.

<후행종합지수 변경 내용>

현 행 (5개)	개 편 후 (5개)	변 경 사 유
상용임시근로자수	상용근로자수	· 임시근로자수는 최근 선행성을 보여 대체
생산자제품재고지수 도시가계소비지출 소비재수입액 회사채유통수익률	좌 등	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